

지 상 법 석

“가르침 믿으면서 실천 안하면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0)

明覺禪師壁間遺文 (명각선사벽간유문) ②

永明禪師八蓋聖解脫文 (영명선사팔일성해탈문)

死生未脫 苦業難逃 方其得志 奚患利正
사생미탈 업고난도 방기득지 극사리정
身如行刺 利解難脫
신여행촉 리정연적
百年非久 三界無安 可惜寸陰 當求解脫
백년비구 삼계무안 가석촌음 당구해탈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업고를 피하기 어렵나니 바야흐로 뜻을 얻을지언 제발라 울바른 마음을 생각하라
몸은 번소 가는듯 같이 하고 (육신의 욕구는 더러운 것을 버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 명리는 도적 (환나에 나고드는 마음의 도적이라는 의미에서 연적이라함)이라 여겨라.

古先潘祖 學有範範 古先潘祖 學有範範
고선제조 거유범범

검약하면 잃는게 적고
사치하면 비난 얻고
겸손하면 시기함 없다

杖錫一味喫土 丹砂 只隨布裹
장석 일미끼토 단하 지개포구
趨步 兩灰滿首 師節 編草為靴
조주 침회만수 랑사 권초위전
或獨單久修 或優遊不脫
혹심선구수 혹우조불취
大難於須臾失 奮則非難
대도약즉신실 사즉초기
謙則有光 退則無辱
겸즉유광 퇴즉무기
去佛逾遠 行道有礙 嚴寺進止 無自尋也
거불유원 행도유간 관사진지 무자욕야

禮佛者 敬佛之德也 念佛者 感佛之恩也
예불자 경불지덕야 염불자 감불지은야
持戒者 行佛之行也 看經者 明佛之理也
지계자 행불지행야 간경자 명불지리아
坐禪者 達佛之境也 參禪者 學佛之心也
좌선자 달불지경야 합선자 학불지심야
得悟者 證佛之道也 說法者 滿佛之願也
득오자 증불지도야 설법자 만불지원야

예불이란 (지극한 마음으로)부처님의 덕을 경배하는 것이요
염불이란 (지극한 마음으로)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지계란 (안팎으로 둘 아니게)부처님의 행을 따라하는 것이요
경을 받다함은(마음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참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좌선이라 함은(마음으로)부처님의 경지에 통달해 들어가는 것이요
합선이라 함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둘 아니게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요
깨달음에 이르면 함은 부처마음 내 마음이 둘 아니게 들고 나는 것이요
법을 실천하다 함은 부처님의 인력을 원만하게 이루고자 함이니라.

實證理地 不受一塵 佛門中 不捨一法
실제리지 불수일진 불사문중 부사일법
然 此八事 猶如四方四隅 闕一不可
연 차팔사 유여사방사우 권일불가

공에 집착한 사람들
불립문자 말하나
불경을 비방하는 것

前聖後聖 其揆(道)一也
전성후성 기규(도)일야
六波羅密 亦修淨行
육바라밀 역수결행
六祖云 執空之人 滯在一隅 謂不立文字
육조운 집공지인 체제일우 위불립문자
自迷猶可 又勝佛經 罪業深重 不可成就
자미유가 우방불경 죄장심중 가불계제

실제로 진리의 자리에서는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나 불사문중에서는 한 번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덟가지 일은 마치 사방사우(동서남북, 서북서남, 동북동남)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옳지 않으니
먼저 성인이나 나중 성인도 그 법은 한가지라. 육바라밀을 또한 모를지겨워 행함이나. 육조께서 이르시되 '공에 집착한 사람은 한 곳(방향)에 틀어 박혀서 일컬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니'
스스로 미거한 것은 그렇다 하거나 또한 불경을 비방함이 되는지라 죄장이 깊고도 무거우려나 기히 경계하지 않았는가 하겠다.

불교는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달리 세 가지의 명칭이 있으니 불교, 불법, 불도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情)과 지(知)와 의(意)의 세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에는 아름다움을 찾는 심미적인 것이 있으니 이를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이라 이르며, 여기에는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알겠다는 종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부처님이요 그 분의 가르침이기에 불교라 하며 아름다운 세계로 창조된 것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을 찬송하는 시에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十方世界亦無比(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전(世間所有我盡現) 일체무유어불자(一切無有如佛者)라 하였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부처님이 가장 훌륭하여/모든 세계에 부처와 견줄 이가 없네/세간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아도/일체가 부처님만한 분이 없네.
그러므로 우리 불교를 믿는 자는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어서 그 분의 가르침이 제일의 종교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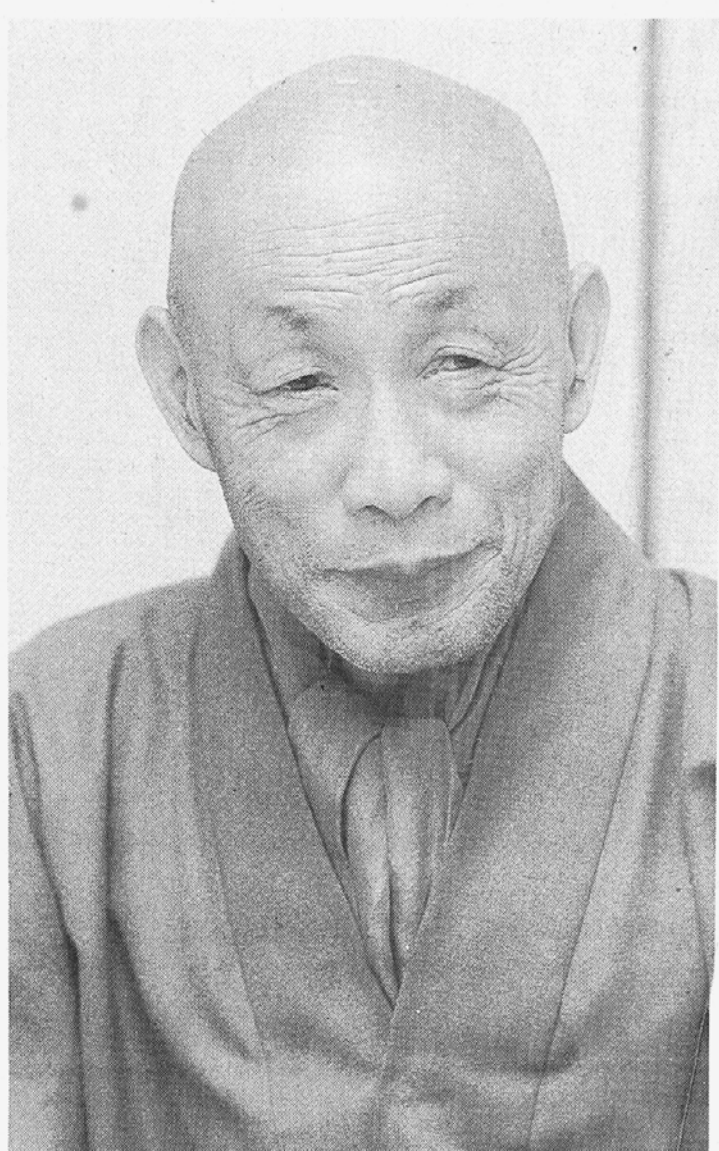
자기 깨달음에 구원 있어

불법이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라는 말이니 이는 철학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다른 교에서는 종교와 철학은 영역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철학없는 종교가 있을 수 없고 종교 없는 철학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불교라 하고 철학적인 면에서는 불법이라 하여 종교와 철학을 하나로 묶는 데서 불교의 묘미(妙味)가 있으니, 이는 참을 찾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밖으로 진리와 구세주를 구하는데 비하여 불교에서는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는 진리나 구원을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천경만론(千經萬論)이 지평일심(只明一心)이라 즉 모든 경론들이 다 마음 밝히는 도리를 말하였으니 이를 전미개오(轉迷開悟)라 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있고 구원이 자기의 깨달음에 있다고 보니 이것은 자력교(自力敎) 즉 자기의 힘으로 깨달자는 종교입니다.

이를 간추려 말하면 인간 중에서 가장 완성된 분이 부처인데 부처란 마음을 깨달은 분을 일컫기에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가 가장 살기좋은 세계, 즉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어 극락세계를 누리려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따로 없으며 중생을 창조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자아의 괴로움을 창조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운제 스님
前 태고종 총무원장

약 력
· 1922년 1. 25. 총북교산 생
· 37년 한재순스님 은사로 득도
· 50년 동국대 사학과 졸업
· 조선대, 건국대 교수 역임
· 88~91년 태고종 총무원장
· 논문 <원효의 인물과 사상>의 40여편

경계에 얽매어 자유 잃어

달마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말을 들은 혜가는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마음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찾아낼 수가 없으니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었네" 그 말에 혜가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용 때문입니다. 마음의

체는 생(生)도 아니고 멸(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을 마음으로 여기고 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환경에 끌려 나옵니다. 환경이 하지는대로 말기는 데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용은 분명히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체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言語道斷)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心行處滅). 여기서 마음을 찾을 수 없다 함은 마음의 체는 생이니 멸이니 있느니 없느니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혜가의 대답은 마음의 체를 본 것입니다. 마음의 용을 마음이라 함은 중생이요, 마음의 체를 마음이라 함은 부처와 조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용은 밖으로 한

Advertisement for '지장보살' (Jizang Bosal) featuring '현미' (wheat) and '쌀' (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ideo inquiries: 02-233-2830.

Advertisement for '佛敎思想 강좌' (Buddhist Thought Course) and '華嚴經 대강좌' (Hwaranggyeong Course). Lists course detail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dvertisement for '佛敎思想 강좌' (Buddhist Thought Course) and '華嚴經 대강좌' (Hwaranggyeong Course). Lists course detail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dvertisement for '공고' (Public Notice) regarding the '대한불교 일승종 불암사' (Daehanbuddhism Ilseungjong Bulamsa). Includes details about the organiz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bbot, Hwang Ok-sun.